“네 입에 숟가락 들어갈 때는 다른 이도 살펴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15일 동국대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에 참가해 동국대 학생들과 ‘21세기 리더의 자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강연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당선 전부터 약속했던 것으로 박 시장은 취임을 하루 앞두고 동국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단에 올랐다. 이 날 박원순 시장은 독서, 도전, 가치에 대해 강조했고, 학생들은 한마디라도 놓칠까 꼼꼼히 메모 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박원순 시장 ‘21세기 리더의 자격’ 강연
학생들, 계단까지 모여 앉아 경청

대학 1학년 때 데모에 동참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소년수방으로 보내졌는데 강도, 살인, 강간범 등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지내다보니 이들과 친해졌고, 그들이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이 되라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9살이었던 나는 그 안에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때 읽은 책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때 만큼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없습니다.

죄수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이해했을 때, 세상에 소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고통과 가난은 사람을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꿈이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일부에서는 내게 ‘협찬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여연대에 만 명이 만원씩 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는 1%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두닦이 아저씨, 행상하시는 분, 거리에서 커피를 파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5%의 지지를 가진 내게 50%의 지지를 가진 안철수 씨가 협찬해 주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시민들은 투표로 나를 협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까요? 내 삶의 궤적·평생 추구한 가치 때문에 그들이 나를 협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지키고 추구할 가치와 원칙과 비전, 꿈을 만드는 대학 시절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 시절 독서 삶의 방향 결정

젊은 시절 가장 좋은 투자는 독서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30년 후 미래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많은 책을 읽는데 있다고 봅니다. 배우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21세기 리더의 조건은 겸허함입니다.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을 다 비우면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버리면 세상 모두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심과 탐욕 때문에 이런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시작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거대한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내게 ‘대덕(大德)이면 득기위(得基位)라’는 글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큰 덕이 있으면 자리는 저절로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덕은 쌓지 않고, 자리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소통·협력이 미래사회의 힘

여러분에게 협동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empowerment’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empowerment’입니다.

21세기 우리 사회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시민들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정에서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시민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한국사회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잘못을 하면 성균관 젊은 선비들이 상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4·19와 6월 항쟁 모두 청년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번 선거 혁명도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시민의 몫 입니다. 정부를 만들고 국회를 조직하는 모든 것이 국민과 주권의 힘입니다. 시민과 청년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도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도전하라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낭여행을 와도 책에 소개된 곳으로만 다닙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런던에 가면 런던 대학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아젠다들이 보일 것입니다. 대기업 입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이라면 시골 마을이나 서울의 가난한 동네 이장에 도전하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셨지만 늘 나를 보며 “네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갈 때 다른 사람 입에 밥이 들어가는지 살펴라”하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게는 공부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나는 학력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남을 따르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눈 앞의 성공 중요하지 않다”
독서 꿈 협동 도전 강조

여러분에게 도전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딪치는 힘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가 일을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면 싫습니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실패한다고 잃을 것이 많습니까? 청춘은 용기와 도전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큰 성공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 가장 큰 것을 잃고 실패할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장은 출세를 보장하지 않는 길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박원순 시장이 강연 후 학생들 모두와 기념 사진을 찍었다.

“박원순 시장님! 질문있어요!”

동국대 학생들 강연 후 배우자 선택, 진로 등 고민 풀어내

박원순 시장은 강연 후 동국대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 학생들은 마치 삼촌과 대화하듯 자신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 북한학과가 최근 학과 개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답변: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있어 북한학과 학생들이 힘드실 것 같다. 조금만 더 통찰력을 갖고 보면 비전 있는 학과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것일 뿐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은 계속될 수 없다. 북한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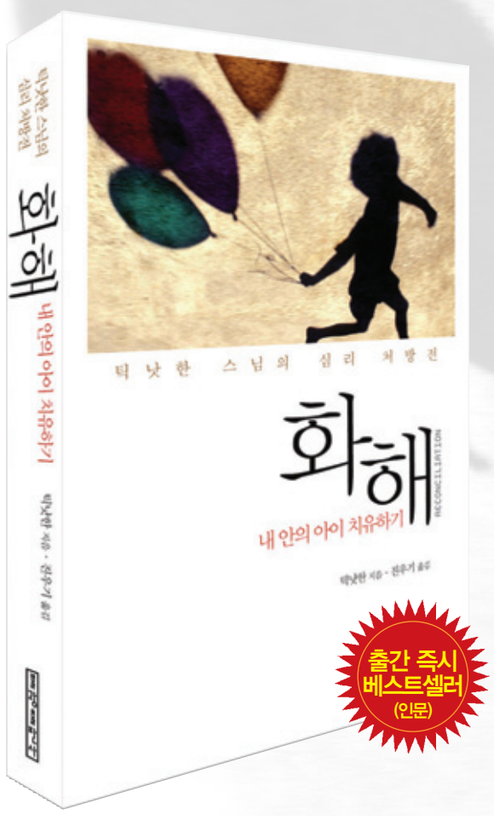
질문: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서로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국·영·수를 잘 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거칠고 외롭고 힘든 인생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가치 있는 도전이 무엇인지 구분을 잘 못 하겠다.

답변: 그렇기 때문에 부딪쳐 보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면 넓은 길이 생긴다. 나이와 상황에 맞게 뭐든지 도전해보고, 안 되면 자원봉사부터 시작해보라. 많은 것에 도전하다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여러분 나이에 더 많은 혼란과 방황을 겪었다. 여러분은 그 시절의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고민만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면 도전해보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화〉 이후 9년, 틱낫한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너무 오랫동안 나를 내버려둔 건 아닐까?’
내면 아이를 찾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길잡이
꼭꼭 숨겨 두었던 마음속 짐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머물다 쉬어 갈 수 있는 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문)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명상! 하고 싶지만 왜지 어려운가요?

잭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156면 | 12,000원
부록 : 명상유도 CD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 당신도 얻을 수 있다